

2018년 12월 2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정부 섯다운 이슈 부각되며 하락 폴 라이언,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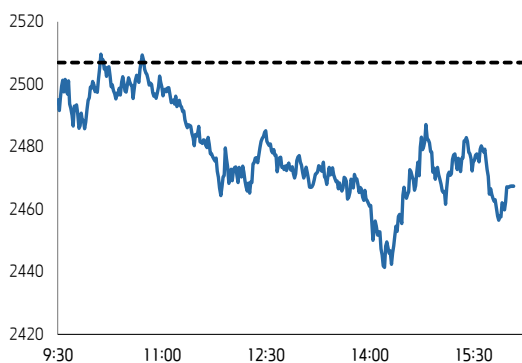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경기 둔화 우려속에 원자재와 소매판매 업종이 하락 주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섯다운’ 우려로 한 때 2% 넘게 하락. 다만, 과거 사례에서 보듯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며 마감(다우 -1.99%, 나스닥 -1.63%, S&P500 -1.58%, 러셀 2000 -1.72%)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감과 정부 섯다운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경기 둔화 우려는 전일 파월 연준의장이 “내년 미국 경제가 우리의 예상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언급한 이후 부각. 미 증시는 이 여파로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 업종과 소비 둔화 우려로 소매판매 업종이 하락 주도. 그러나 분석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11/1~12/19 일까지 온라인 소비가 1,106 억 달러(yoy+18%)를 기록했다고 발표. 어도비는 연말까지 150 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매출이 더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 이런 소비 증가는 미국 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 안정과 임금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될 개연성은 제한

한편, 21 일까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미 행정부는 ‘섯다운’. 전일 미국 상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국경장벽’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2 월 8 일까지 단기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이에 힘입어 정부 섯다운 이슈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었음. 그러나 하원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이후 폴 라이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섯다운’ 가능성이 높음. 다만, 과거 섯다운 사례를 감안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국경 보안이 없다면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해 향후 추이에 주목해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0.12	-0.90	홍콩항셱	25,623.53	-0.94
KOSDAQ	668.13	-0.59	영국	6,711.93	-0.80
DOW	22,859.60	-1.99	독일	10,611.10	-1.44
NASDAQ	6,528.41	-1.63	프랑스	4,692.46	-1.78
S&P 500	2,467.41	-1.58	스페인	8,596.50	-1.97
상하이종합	2,536.27	-0.52	그리스	613.50	-0.89
일본	20,392.58	-2.84	이탈리아	18,576.90	-1.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매유통, 원자재 업종 부진

아마존(-2.29%)은 수수료 일부를 감면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락 했다. 월마트(-3.61%), 타겟(-1.80%) 등과 온라인 판매 경쟁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돼 향후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부진 우려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온라인 소매 유통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코스트코(-2.12%), TJX(-2.77%), 메이시스(-4.24%), 콜스(-2.74%) 등 오프라인 매출이 많은 소매 유통 업체들이 하락 했다.

엑손모빌(-3.04%), 셰브론(-2.64%), 코노코필립스(-2.09%)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부진 여파로 하락했다. US스틸(-1.81%), AK스틸(-1.61%) 등 철강업종도 동반 하락 했다. 애플(-2.52%)은 중국에 이어 독일도 특허권 소송에서 퀄컴(-0.65%)의 손을 들어 일부 아이폰 판매 금지 판결을 내놓자 하락 했다.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 부츠(-5.02%)와 식품 제조업체인 코나그라(-16.53%)은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77%	대형 가치주 ETF	-1.51%
에너지섹터 ETF	-3.81%	중형 가치주 ETF	-1.59%
소매업체 ETF	-1.75%	소형 가치주 ETF	-1.26%
금융섹터 ETF	-0.85%	배당주 ETF	-0.98%
기술섹터 ETF	-1.79%	변동성 ETF	+5.02%
소셜 미디어업체 ETF	-2.04%	대형 성장주 ETF	-1.83%
인터넷업체 ETF	-2.26%	중형 성장주 ETF	-1.88%
리츠업체 ETF	-1.21%	소형 성장주 ETF	-2.14%
주택건설업체 ETF	-1.07%	신흥국 고배당 ETF	+0.92%
바이오섹터 ETF	-1.71%	신흥국 저변동성 ETF	+0.43%
헬스케어 ETF	-1.44%	하이일드 ETF	-1.01%
곡물 ETF	-0.29%	물가연동채 ETF	-0.27%
반도체 ETF	-0.80%	Long/short ETF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9.45	-2.79%	-10.19%	-12.30%
소재	307.59	-1.28%	-4.63%	-7.90%
산업재	534.25	-1.80%	-6.16%	-8.17%
경기소비재	757.90	-2.25%	-8.02%	-4.98%
필수소비재	521.66	-1.74%	-7.90%	-7.38%
헬스케어	971.78	-1.28%	-8.54%	-6.54%
금융	386.97	-0.78%	-4.42%	-10.88%
IT	1,071.69	-1.88%	-7.46%	-4.66%
커뮤니케이션	137.82	-1.63%	-5.55%	-3.17%
유틸리티	275.30	+0.27%	-4.08%	-0.65%
부동산	195.65	-1.21%	-5.06%	-4.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 정부 섀다운 우려 제한적

MSCI 한국 지수는 1.02% MSCI 신흥 지수도 0.8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829 계약)에 힘입어 미 증시 하락 불구 보합인 261.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1.2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섀다운 이슈 부각 여파로 급락했다. 이는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1990 년 이후 4 차례의 섀다운을 전후한 주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KOSPI 는 섀다운 직전까지 매물이 출회되었으나, 실제 섀다운 된 이후 반등을 했었다. 이는 섀다운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이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국경 보안 없다면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 이라고 주장해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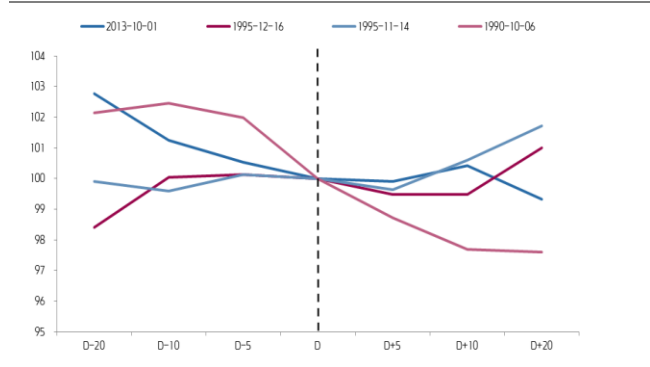
한편, 지난 12/12~12/19 일 글로벌 펀드플로워를 살펴보면 북미지역에서 381.4 억 달러가 유출돼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는 378.1 억 달러가 유출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등 신흥국으로는 23.3 억 달러가 유입되는 등 여전히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진행되고 있어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더불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1 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점을 감안 북한 관련 종목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인프라투자 승인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 관련 업종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이후 4차례의 섀다운을 전후한 주식시장 변화



자료: 블룸버그,키움증권

1990년 이후 4차례의 섀다운을 전후한 달러가치 변화



자료: 블룸버그,키움증권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경기 선행지수 개선

12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12.9) 보다 둔화된 9.4 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9.1→14.5), 고용지수(16.3→18.3)이 개선되어 나쁘지 않은 결과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0.6 만 건) 보다 증가한 21.4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11 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지난달 발표치(mom -0.3%)를 상회해 여전히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 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또 급락

국제유가는 인도의 11 월 원유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했다. 더불어 오후 들어 미 주식시장의 낙폭이 확대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시장 일부에서는 오늘 하락에서 반증 하듯 최근 원유시장 급락은 공급과 수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선물옵션만기일(21 일)을 앞두고 수급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달러화는 미 정부 섣다운 이슈가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이탈리아 예산안 이슈 타결 효과로 오늘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발표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스웨덴 크로나는 중앙은행이 7 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대비 1.5% 넘게 급등 했다. 멕시코 폐소화 또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정부 섣다운 이슈가 부각되며 국채선물이 하락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FOMC 이후 주식시장 하락이 지나치다" 라고 언급 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부진 했으나, 고용과 신규수주 등 세부항목은 양호해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2%, 철근도 1.8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5.88	-4.75	-13.16	Dollar Index	96.383	-0.67	-0.70
브렌트유	54.35	-5.05	-11.55	EUR/USD	1.1454	+0.69	+0.82
금	1,267.90	+0.92	+1.64	USD/JPY	111.27	-1.08	-2.08
은	14.869	+0.34	+0.09	GBP/USD	1.2664	+0.43	+0.17
알루미늄	1,912.00	-0.78	-1.04	USD/CHF	0.9878	-0.68	-0.64
전기동	6,000.00	-0.25	-2.52	AUD/USD	0.7117	+0.11	-1.52
아연	2,540.00	-0.04	-1.01	USD/CAD	1.3489	+0.04	+1.00
옥수수	375.25	-1.70	-2.34	USD/BRL	3.8443	-1.33	-1.19
밀	523.50	+0.19	-2.33	USD/CNH	6.8927	-0.19	+0.21
대두	906.25	-0.74	-1.55	USD/KRW	1127.80	+0.38	+0.39
커피	102.50	+1.64	-1.54	USD/KRW NDF1M	1121.24	-0.62	-0.19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98	+4.28	-11.55	스페인	1.370	-0.50	-5.10
한국	1.934	+1.10	-8.60	포르투갈	1.649	+0.50	-2.00
일본	0.027	-0.80	-3.00	그리스	4.272	-0.20	+5.50
독일	0.228	-1.10	-5.70	이탈리아	2.734	-3.50	-21.90